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3호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조계종 법인관리법 보완책 시급하다

2014년 6월 제정 이후 시행 900일을 맞은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이 법과 행정 미비로 '지원없는 관리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법 개정 ·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인관리법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은 조계종 제207차 중앙종회에서다.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 등은 종책질의를 통해 법인관리법 제정 이후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지원은 미비, 제한 · 의무만

현재 대표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안거 기간에 이뤄지는 결계 · 포살이다. 법인관리법 의무 관련 조항인 16조에는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 ·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포살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무와 제한이 늘었을 뿐 이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전 스님은 "결계 · 포살 신고의 경우 종단 소속 사찰은 주지 스님이 일괄로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 소속 사찰은 개인이 일일이 다해야 한다. 등록 법인 소속 사찰에 대한 행정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시행 과정서 '전법 · 포교' 역기능

또한, 법 제정 당시 우려대로 전법 · 포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님과 재가자가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불교계 유수 재단인 A재단의 경우 최근 조계종 법인 등록을 두고 스님 이사가 전부 사퇴했다. 해당 재단은 대전의 한 사찰을 기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찰보유법인이지만, 현재 재가자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돼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보유 사찰 주지직이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어 사찰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법인 목적과 구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률적 법인관리가 전법 포교에 역기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A재단 관계자는 "스님들이 재단의 종단 미등록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소임을 내려놨다"며 "현재 前 이사장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사찰과 재단과의 연결 관계는 없는 상황이다. 사찰은 연말 쯤 운영에 관해 이사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법 시행 과정에서 오히려 스님의 사회문화 등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님과 재가자가 결합하거나, 외부와 타종단 법인에 스님이 임원을 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 사이에 법인 활동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만 만연해 가고 있다. 지속적인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종회의원 스님도 "재가자가 포교를 위해 법인을 세운 후 스님을 추대해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 미등록으로 스님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계 · 포살 의무 명시하고
행정 서비스 지원은 全無

출가 · 재가 출연법인 경우
등록 두고 스님 이사 사퇴
일률적 법인관리의 역기능

대각회 특별교구화 연기 등
法 운영 불안요소도 산재해

장기화된 갈등 불안 요소

애초 타 법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가져왔던 대각회의 특별교구화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선학원과의 갈등이 장기화 되는 부분도 법인관리법의 불안요소들이다.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제207차 중앙종회에서 다시 연기됐다. 204회 제출된 안건으로 모두 3차례 연기된 것이다. 조계종과 대각회는 2014년 5개 조항을 합의했고, 올해 8월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 대각회 관계자는 "이번 종회를 앞두고 양측 대표단이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주장이 달라 협의가 안됐다"며 "대각회 내부에서는 법인 설립 취지를 담은 정관까지 위배하면서 특별교구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晩秋, 사찰을 물들이다 완연한 만추의 시기, 서울 길상사는 곳곳이 단풍으로 빨갛게 물들어있다. 이르게 찾아온 한파에도 불자와 시민들은 사찰 단풍을 카메라에 담으며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져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사찰 단풍 사이로 이는 바람이 아직은 그리 춥지 않다. 그저 반갑기만 하다. 안녕 가을, 내년에 다시 만나길. 글= 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출판문화상 대상 '아홉 개의 산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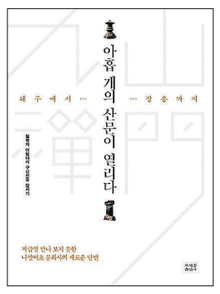
불출협, 올해의 불서 선정… 30일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조계종출판사 刊, 이일야 지음)〉가 선정됐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스님)는 11월 17일 제 13회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지상에 내려온 천상의 미(서해문집 刊저, 강희정 지음)〉와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담앤북스 刊저, 강미농 지음/양관스님 번역)〉 등 2종이 선종됐다. 이어 올해 처음 시상하는 향산번역상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담앤북스 刊저, 켄포 소달지 지음, 신노을 지음)〉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화엄경 80 변상도이야기(사유수 刊, 자훈스님 지음)〉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민족사 刊, 이자랑 이필원 지음)〉 〈어떻게 뚱보왕(참글어린이 刊, 김미숙 글/문서령 그림)〉 〈한국의 사찰숲(모과나무 刊, 전영우 지음)〉 〈명성(불광출판사 刊, 남지심 지음)〉 〈붓다 프로젝트(민족사 刊, 원담 스님 지음)〉 〈선종영가집 강해(불광출판사 刊, 한자경 지음)〉 등이 올해의 불서 10종에 뽑혔다. 또한 대상 수상작에는 1000만원의 상금(출판사와 저자 각각 500만원씩)이, 우수상에는 4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각 200만원씩), 나머지 7종 및 향산번역상은 각 100만원씩 부상으로 수여된다.



한편 이번 불교출판문화상에는 총 30개 출판사에서 90종의 서적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12월 5일 차기 종정 추대

현 종정 진제 스님 ·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거론

조계종 최고 어른인 종정을 선출하는 자리, 종정 추대회의가 12월 5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차기 종정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 종정인 진제 스님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차기 종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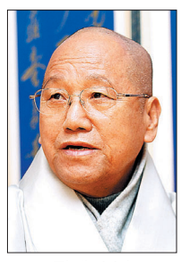
11월 15일 조계종 측은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종정 추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정 추대회의는 25명의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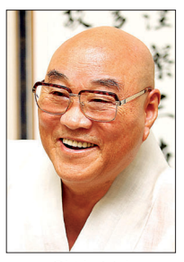
현 종정 진제 스님은 2011년 12월 14일 종정 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종정에 선출됐으며 2012년 3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 3월 25일 임기 만료 예정으로 종헌에 따라 3개월 전 차기 종정을 선출해야 한다. 종헌 상 종정 임기는 5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 종정 스님이 대부분 연임해왔지만 새로운 종정 스님이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 후보로는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원로 스님들을 중심으로 '종단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종정을 모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새 종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종정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4년 해인사에서 석우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경허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이어진 선맥을 이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사로 평가받고 있다. 선사지만 전법에도 활발히 나서 1971년 부산 해운대에 해운정사를 창건했다. 금모선원 조실로 추대됐으묘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지냈다.

진제 스님은 종정 취임 후 간화선 부흥을 위해 노력해 2015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불자가 참여한 간화선 무차대회와 간화선 대법회 등을 열기도 했다.


진제 스님


월서 스님

조계종 최고 어른 추대하는 자리
진제 스님, 대표적인 선사로 꼽혀
월서 스님, 선 교학 행정 두루 밝아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선 금오 스님의 상좌로 청정수행 가풍을 위해 노력해왔다.

193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월서 스님은 1956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분황사, 조계사, 불국사, 천왕사, 봉국사 주지를 지냈다. 제4 · 5 · 6 · 8 · 10 · 12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의장, 조계종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30여년 전부터는 '선묵일여'(禪墨一如) 정신으로 정진한 선사이기도 하며, 원로 스님 중 종단 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법주사 조실로 추대되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2년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설립,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에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2009년 금오선수행연구원을 설립해 불교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백초월 스님 선양 사업 본격화

은평구 · 고성군 · 함양군 17일 업무협약

서울 진관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백초월(1878~1944) 스님의 선양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은평구와 경남 함양군, 고성군은 11월 17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백초월 스님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은평구 · 고성군 · 함양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이유는 백초월 스님이 고향이 경남 고성군이며, 출가처가 함양군 영원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한 곳은 진관사였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지자체는 백초월 스님의 독립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사업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자료 발굴을 비롯해 역사 콘텐츠 교류 · 협력 증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